

No.20150225-001

제목: 비웃는 숙녀

저자: 나카야마 시치리

페이지수: 334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1월 31일



<내용소개>

천부적인 미모와 교묘한 화술로 사람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말의 영향력은 무시 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 치 혀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한 마디의 말로 인해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상황이 흔하게 일어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 '감언이설'이 있다.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민 달콤한 말과 이득을 내세워 속인다는 뜻이다. 이 소설은 인생의 좌절을 맛본 4명의 인물이 한 명의 여성의 말에 현혹되어 더욱 비참한 길을 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달콤한 유혹을 더욱 뿌리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악녀로 묘사되고 있는 가모우 미치루가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 노노미야 쿄코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던 쿄코는 미치루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주는 미치루에게 쿄코는 친구 이상의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었고 둘은 서로만 알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흘러 미치루는 경제적인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컨설턴트 회사를 차리고 쿄코는 그녀의 조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는 4명의 손님이 찾아온다. 직장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진 사요, 수 많은 기업에 이력서를 냈지만 취업에 실패한 히로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남편과 한창 커가는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힘든 삶을 지내고 있는 있는 요시에까지 모두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었다. 미치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 방법들은 하나 같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작가는 국내에 소개된 다른 소설 '살인자 잭의 고백'에서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대의 악녀로 묘사되는 가모우 미치루와 그녀로 인해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4명의 남녀를 보여주면서 이 사회에 병적으로 퍼져있는 인간성의 상실을 고발하고 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심화되는 취업난 그리고 가정문제 등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현실에 지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는 화려한 미사여구 보다는 인물 간에 오가는 담담한 대화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진행방식을 택해 독자들이 인물의 심정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처럼 보이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그 희망이 감추고 있는 속내를 알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운 듯 비웃는 미치루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독자들은 그런 미치루의 행동보다는 그 4명의 희생양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든 사회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의 숨어 있는 이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낸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노노미야 쿄코

제2장: 사기누마 사요

제3장: 노노미야 히로키

제4장: 후루마키 요시에

제5장: 가모우 미치루

<저자소개>

나카야마 시치리

1961 년 일본 기후현 출생. 2009 년 '안녕, 드뷔시'로 제 8 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했다. 주요 작품으로 '살인마 책의 고백' 등이 있다.

No.20150225-002

제목: 결혼활동: 1,000번의 노크

저자: 미나미 아야코

페이지수: 236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12월 22일



<내용소개>

연인을 원하고 결혼을 꿈꾸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치는 러브 코미디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행사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인의 통과의례였다. 지금이야 30대가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늘고 있다.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합해 2억을 훌쩍 넘기는 연구 결과를 보고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 결혼 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 등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직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고 싶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설은 그런 운명의 상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느 여성의 모습을 작가의 뛰어난 개그센스로 잘 버무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인 미나미 아야코는 32세의 남자 친구 없는 싱글녀다. 직업은 작가, 조금은 야한 이야기를 주로 쓰는 에로 작가다. 하지만 별이는 그다지 좋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일도 결혼도 생활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보내고 있던 그녀 앞에 어느 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최악의 구남친이 자신은 유명이라고 하며 나타난다. 그리고 유명인 자신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아야코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녀지만 항상 자기 옆을 떠나지 않는 유명을 하루 빨리 떼어놓고 싶어서 결국 본격적인 구혼활동으로 뛰어든다. 어쩐지 강사들만 잘생긴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가득한 30대들의 미팅장소에도 가지만 도저히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찾을 수 없던 아야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남 사이트까지 손을 뻗치게 된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나미 아야코는 사실 작가의 이름이기도 하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 겪었던 수 많은 맞선과 미팅 경험을 생생하게 적어놓은 이 책은 결혼을 앞둔 여성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장면은 여성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한 편 남성들에게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자신에게 들러붙은 유령을 떼어내기 위해 반은 억지로 구혼활동에 뛰어든 주인공과 그런 그녀의 결혼성공을 위해 시시콜콜 잔소리를 아끼지 않는 유령의 즐거운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 조금은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의 소설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목차소개>

제1화: 빌어먹을 남자 of the year

제2화: 성계와 박고지

제3화: 웬지 무리, 웬지 싫어

제4화: 누구나 불량채권

제5화: 살아있는 것처럼 살다

제6화: 맞선 전쟁

<저자소개>

미나미 아야코

1981 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출생. 2005 년 '여름이 끝나다'로 제 4 회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성인 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등이 있다.

No.20150225-003

제목: 파리의 미술관에서 아름다움을 배우다 - 루브르에서 남프랑스까지

저자: 후세이 히데토

페이지수: 253

장르: 미술 / 여행

출간일: 2015년 1월 15일



<내용소개>

시대의 명작과 함께하는 프랑스 예술 여행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운동 '르네상스'는 지금의 서유럽 문화를 이룬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는 르네상스는 곧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지역까지 전파되어 각각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근대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되었다. 그 중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특히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 두 나라에서 태어난 예술가들이 남긴 수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다.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이 두 나라 출신의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 예술을 중시하는 왕조의 특징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유했던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미술 비평가인 저자와 함께 파리에서부터 남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프랑스 미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서 이름을 알고 있을 만한 파리의 루브르, 오르세 박물관은 물론 다소 생소한 파리 교외나 남프랑스에 자리한 미술관까지 꼼꼼히 둘러보고 있다. 특히 각 미술관이 자랑하는 유명한 작품들을 찍은 사진도 함께 실어놓았는데, 모든 사진들이 다 컬러로 되어 있어 마치 작가와 함께 프랑스 이곳 저곳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프랑스 미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회화작품을 포함해서 건축물 그리고 동양에서 가져온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다. 노트담 대성당을 보면서 변화해온 유럽의 건축양식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과거의 예술적 감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루브르 박물관을 평가하는 저자의 친절한 설명이 독자로 하여금 더욱 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동안 교과서나 인터넷에 의존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프랑스의 '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번쯤은 보고 싶던 명화, 20세기의 예술작품 그리고 화가의 아틀리에까지 모든 종류의 예술이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다. 예술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타이틀이다.

<목차소개>

제1장: 서양미술 입문

(루브르 미술관 그 첫 번째 - 모나리자 / 루브르 미술관 그 두 번째 - 프랑스의 그림 등)

제2장: 20세기의 예술로

(피카소 미술관 - 파카소가 사랑했던 피카소 / 퐁피두 센터 - 20세기 예술의 성지 등)

제3장: 파리에 중세의 미술도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 파리는 천 년의 수도 / 클뤼니 중세 미술관 - 중세미술을 가까이에서 등)

제4장: 역시, 프랑스 근대화화

(오르세 미술관 그 첫 번째 - '빛'을 따라서 / 오르세 미술관 그 두 번째 - '누드'를 따라서 등)

제5장: 아름다움이 있는 삶

(로단 미술관 - 해부학과 조각 /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 화가의 아틀리에 등)

제6장: 더욱이 이런 미술관도

(마르모탄 미술관 - 세계 제일의 모네 미술관 / 기메 미술관 - 파리에 있는 동양미술 등)

제7장: 파리의 교외로

(모네의 집 - 지베르니 / 후지타의 예배당 - 랑스 등)

제8장: 남프랑스

(바로니스 - 국립 피카소 미술관 / 카뮈 슈르 메르 - 하노왈의 아틀리에 등)

제9장: 파리에 돌아오다

(마르세이유 - 3일 간의 공백 / 도둑맞은 모나리자 - 1991년 어느 여름 날 등)

<저자소개>

후세이 히데토

1960 년 군마현 출생. 도쿄 가쿠게이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한 후 도시샤대학 대학원에서 미술연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도쿄대학 의학부 조수 등을 거쳐 현재 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머릿속의 미술관' 등이 있다.

No.20150225-004

제목: 돈이 원숭이를 진화시켰을까?

저자: 노구치 마히토

페이지수: 247

장르: 경제

출간일: 2014년 11월 14일



<내용소개>

당신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 보다 나은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일상 경제학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는 인터뷰 도중 돈을 잘 쓰는 것은 돈을 버는 것만큼 힘든 일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탁월한 안목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그도 현명한 소비는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 현명한 소비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빌 게이츠만 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이 하나 같이 현명한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소비를 하면서 지내왔을까?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주변에는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매력적인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거기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끈 IT 기술의 발전과 쉽고 간편한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현명한 소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나날이 무더지는 경제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먼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서 경제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파인애플 이론, 금융공학, 확률과 통계 그리고 행동 경제학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도 이 책에 적혀있는 일상적인 예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제2장만 읽으면 부동산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3분 만에 자택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지식을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당첨될 확률이 극히 희박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행동 경제학이나 사람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쓰인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그 외에도 생명보험을 드는 사람의 심리와 같은 도시인데도 땅 값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한 짙막한 지식도 함께 실려 있어서 그 동안 어렵פות이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소하는데도 안성맞춤이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경제지식을 알려주는 것 보다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힌다면 지금보다 더욱 윤택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참고서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당신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1장: 세계 제일의 투자자는 평범한 주부와 똑같은 판단방식을 가지고 있다 - 가치와 가격

제2장: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3분만에 자택의 가치를 알 수 있다 - 가치와 캐시플로

제3장: 연공서열은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바라는 제도 - 시간의 영향

제4장: 당신의 지갑에는 비뚤어진 동전이 들어가 있다 - 확률의 착각

제5장: 안 될걸 알면서도 복권을 사는 이유 - 판단의 버릇

제6장: 분식집과 고급레스토랑 중에 어느 쪽이 가치가 높을까 - 리스크와 리턴

제7장: 재미와 베짖이, 어느 쪽이 좋은 인생일까 - 돌아서 가는 길의 가치

<저자소개>

노구치 마히토

1962 년 일본 기후현 출생. 1984 년 교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미즈호 은행에 입사했다. 골드만 삭스 증권 등을 거쳐 2004 년 기업가치 평가회사인 플타스 컨설팅을 설립, 지금도 회사의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판다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등이 있다.

No.20150225-005

제목: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잡담의 기술

저자: 무토 세이에이

페이지수: 144

장르: 비즈니스 / 자기계발

출간일: 2014년 10월 18일



<내용소개>

쌀쌀한 분위기를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 센스쟁이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비법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 대화 외에 글과 몸짓으로 서로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대화만큼 빠르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화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스스로 대화기술을 몸에 익혀 점점 달변가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를 잘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존재한다.

‘잡담’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전에는 단지 쓸데없이 지껄이는 말이라고 적혀있는 잡담은 과연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는 말일까? 과거 병원에서 심리요법을 담당하는 의사로 활동하고 현재 심리학을 이용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 칸토심리상담원 협회의 무토 세이에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본래 낯가림이 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데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말하는 한 두 마디의 잡담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 앞에서 긴장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상대방에게 ‘조금 긴장해버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네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말에는 신기한 힘이 있어서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화를 진행해버리면 여전히 긴장한 상태를 안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상태로 제대로 된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건 예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잡담의 기술과 대화를 잘 이끌어 가질 못하는 자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적혀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에 대한 차이점도 알려주는 동시에 대화 중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능숙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비법도 놓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말한 한 마디의 말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목차소개>

제1장: 처음으로 만난 상대와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비법

(처음으로 만나는 상대라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 말을 걸려고 해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 '잠시 실례합니다.', '잠시 괜찮으신가요?' 등)

제2장: 의미전달이 용이한 대화방법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더듬거리게 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어쩔 수 없지. 긴장한 채로 말하자' 등)

제3장: 호감이 가는 대화방법, 분위기가 좋아지는 대화방법

(자기 자신을 내놓는 방법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 대화가 서투르면 노래를 부르자 -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등)

제4장: 기분 좋은 대화방법, 기분 나쁜 대화방법

(편안한 얼굴로 말하는 연습을 하자 - 표정만으로도 대화는 성립한다 /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겐 진절머리가 나요 - '잠시 쉬었다 하지 않으실래요?' 등)

제5장: 꺼내기 힘든 말을 능숙하게 전달하는 대화방법,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부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하면 모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 '나도 정말 부탁하기 미안하지만 내 코도 석자야' 등)

<저자소개>

무토 세이에이

1976 년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에서 위생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병원 정신과에서 심리요법 담당의사를 거쳐 현재 도쿄 멘탈헬스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만화로 배우는 멘탈헬스' 등이 있다.

No.20150225-006

제목: 스토리 사고력

저자: 칸다 마사노리

페이지수: 28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4년 12월 6일



<내용소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퓨처 맵핑을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할 여유도 없이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가끔은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에 주중에 끝 내지 못했던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다. 친구나 선배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유명한 기업의 CEO가 주관하는 강연에도 꾸준히 참석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막상 자신이 내놓는 성과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직 자신이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노력'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라면 어떨까? 이 책은 우리가 이제껏 생각했던 성공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 대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7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한 3주간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무려 실험자의 95%가 자신이 안고 있던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저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퓨처 맵핑'에 대한 모든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을 깨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만약 자신의 재능을 깨우지 못한 채 지금처럼 노력만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자체가 우리를 도와주는 든든한 아군이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다. '역발상'이라는 개념과 비슷해 보이지만 '퓨처 맵핑'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에 앞서 말한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생의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다. 그 여정의 끝을 보다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참고서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당신의 재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스토리

제1장: 스토리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 / 지금까지 이어온 사회의 이야기는 전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 등)

제2장: 당신의 안에 잠들어 있는 스토리의 힘

(스토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준다 / 스토리는 서로 다른 재능을 결합시킬 수 있다)

제3장: 새로운 현실을 향해 떠나라

(퓨처 맵핑은 언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 3일 후의 미래를 만들어내다! 등)

제4장: 7가지의 실천방법

(실천방법 1: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를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이타의 법칙 / 실천방법 7: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내보일 수 있는가? - 공백의 법칙 등)

제5장: 미래를 만드는 행동사례

(행동사례 1: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 해외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인 태국과 일본인 여성 기술자들 등)

제6장: 퓨처 맵핑에 관한 13가지 질문

<저자소개>

칸다 마사노리

일본 출생. 조치대학 외국어학부를 졸업한 후 뉴욕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략 컨설팅 회사와 미국가전 메이커 회사의 일본지부 대표를 거쳐 1998 년부터 전문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 등이 있다.

No.20150225-007

제목: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방법

저자: 후카사와 타카유키

페이지수: 16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4년 9월 19일



<내용소개>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참고서

지구에 살고 있는 수 많은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고도로 발달된 뇌 덕분에 인간은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여 맹수들을 제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발달한 이런 사고방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은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감정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있어도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 고민의 종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 책은 그런 수 많은 고민 중에서 자신의 '열등감'에 의한 고민을 인간관계에 정통한 아들러 심리학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입사동기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픈 사람도 있고 항상 얼굴을 붉히게 하는 상사 때문에 월요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고민 없는 인생은 없다지만 뽀족한 대책 없이 고민만 한다면 그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그저 도망치려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들러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아들러의 이런 가르침들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열등감'에 대해 집중한 저자는 열등감에 사로 잡히지 않기 위해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비관적인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앞서 말한 이론을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겪을 만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무작정 반대의사를 보이게 되면 서로 불신만 쌓이고 악감정만 늘어날 뿐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라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사회생활 중 겪게 되는 많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 둘 쌓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생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런 열등감을 영똥한 방향으로 해소하지 말고 아들러 심리학을 이용한 '새로운 사용법'을 적용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즐거운 삶을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드는 방법

(다른 사람의 평가만 신경 쓰는 나 자신 / 하기 싫은 일은 항상 피하기만 하는 나 등)

제2장: '대인관계'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다

(직장 상사와 맞지 않아 / 리더로써 자신이 없어 / 결혼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불안해 등)

제3장: '인생'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걸어가자

(자신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지금 생활이 그다지 즐겁지 않아 등)

<저자소개>

후카사와 타카유키

임상심리학자. 아동상담소, 병원 정신과 근무 등을 거쳐 현재 심리임상사무소 루에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임상실험과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메스컴에도 꾸준히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

No.20150225-008

제목: 정돈하다, 마련하다.

저자: 와타나베 마키

페이지수: 175

장르: 라이프 스타일

출간일: 2015년 1월 23일



<내용소개>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적당히 알맞은 정도로 살아가는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우리 주변에 혼자 사는 싱글족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루 종일 시달린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을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일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생활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항상 아침마다 당연한 듯이 차려져 있던 밥은 온데간데 없고 술을 마신 다음 날 쓰린 속을 달래주는 건 언제나 냄비에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것인지, 우리 주변에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가득한 책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은 걸으면 그런 수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보이지만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방법이 적혀있다.

가족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나오는 답은 다르겠지만 요리와 청소, 그리고 정리라는 요소는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피하는 것이 바로 또 위에서 말한 세 가지다. 요리는 그 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와 정리는 매번 깨끗하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더러워지는 방을 보며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모른다. 저자는 본문에서 TV 프로그램에 나올만한 요리를 해먹기 위해 큰 수고를 덜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물론 매일 쌓이는 먼지를 처리하기 위한 청소 습관도 다룬다. 또한 난잡한 정리 습관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제 때 찾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물건 정리 방법도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조금은 부족해도 자신이 즐거운 방향으로 생각을 바꾼 결과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실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싱글 라이프의 재미를 더 해줄 그녀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본문이미지>



이리코出汁のくまみの原因は、鹽わた。水につける前に、鹽と一緒に洗い落とします。

25 「わが家の料理」を掲載す中心



自作の「インスタント出汁」。作りすぎると腐敗してしまうので、4〜5日冷蔵庫を保管に。



上品な味わいのあじ出汁。水1ℓにあじ4〜5尾を入れ、冷蔵庫でひと晩置けばでき上がり。



35 「わが家の料理」を掲載す中心



ごみ箱はイタリアの「カルテル」のもの。毎朝床をふくついでに、側面も雑巾がけを。



水に雑巾がけを。凹凸のあるタイルなので、わりと力を入れてゴシゴシする感じだ。

103 もの整理をしを整える



「エコパール」の住居用洗剤やオープン専用洗剤、洗剤めにしたタネン類など。



毎朝、必ず行っている玄関掃除。まずはほうきで、大きなホコリを掃き集めます。



染め直しをしたロングブラウスとストール。もともと水色だったストールに赤をのせて紫に。薄い藍色だったブラウスは同じ系統の色をのせ、濃いブルーにしてみました。

115 もの整理をしを整える

オープン棚は毎年着る服を



もの置き部屋のオープン棚。こちらも毎年着るパジャマなどを折りたたんで収納。下の引き出しに家族3人分の靴下や、息子の学校用の練習服、エコバッグ類などを収めています。

<목차소개>

제1장: '집밥'을 다시 보게 하는 힌트

(비결은 바로 부엌에 있는 '작은 보험' / 염분을 줄이려는 노력과 지혜 등)

제2장: 매일 식단을 좀 더 즐겁게 짜는 방법

('불만 올리면 완성되는' 냄비요리 / 컨디션이 별로 인 날에 해먹는 요리 등)

제3장: 물건과 생활을 정돈하다

(수세미와 빗은 내 취향으로 / 아이들의 장난감 정리 등)

제4장: 몸과 마음을 정돈하다

(‘To do’ 리스트를 짜지 않는다 / 편지 세트를 항상 준비해라 등)

제5장: 알뜰한 생활이 가져다 주는 이익

(여행 기념품은 가볍게 / 편안한 여행은 반 년 전부터 준비할 것 등)

<저자소개>

와타나베 마키

요리연구가. 그래픽 디자이너를 거쳐 2005 년부터 ‘사루비아 급식실’을 차린다. 책과 잡지 그리고 광고를 통해 제철 재료와 야채를 이용한 건강한 식단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도시락 반찬 수첩’ 등이 있다.

No.20150225-009

제목: 나는 미아가 아니야

저자: 이타바시 마사히로 (글) / 시게리 카츠히코 (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12월 1일



<내용소개>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잘 표현한 그림책

어른에 비해서 키가 그리 크지 않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직 시야도 넓지 않고 인생의 경험도 적은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분명히 거대하고 신기하게 보일 것 입니다.

이 동화책은 누구나 예전에는 겪었을 어린 시절의 그 눈높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미아가 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어른의 눈이 아닌 아이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 동화책은 마치 책을 읽고 있는 독자가 작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책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책은 부모들에게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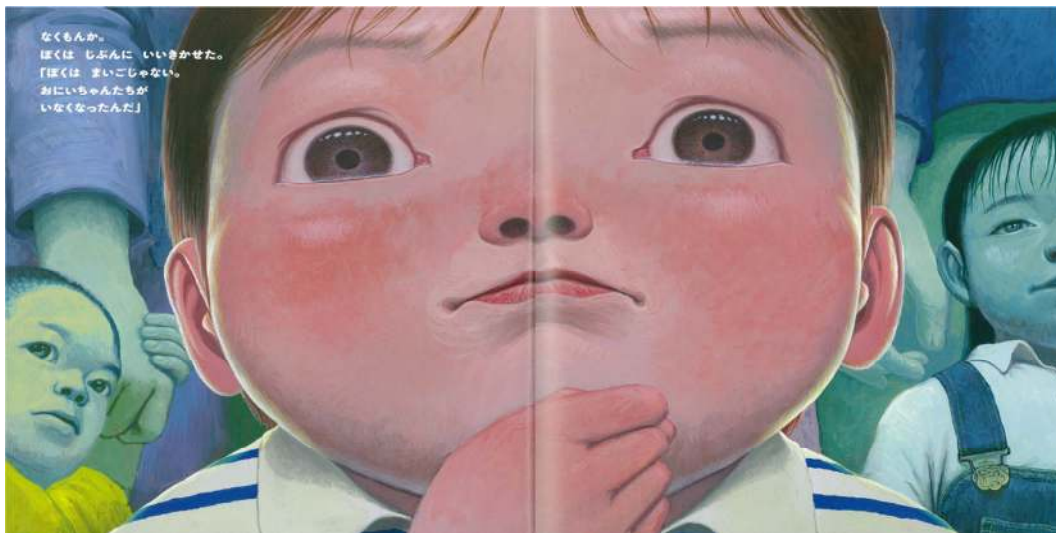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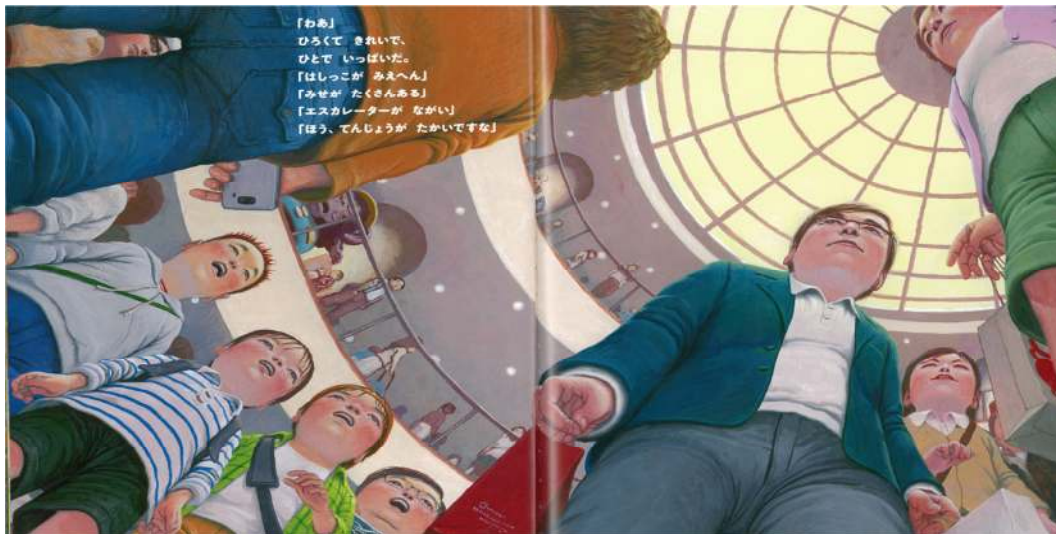
이타바시 마사히로 (글)

일본 도쿄 출생. 추오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 만화 원작 'BOYS BE...' 등이 있다.

시게리 카츠히코 (그림)

일본 기후현 출생. 전문학교 졸업 후 현재 프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매직 숲' 시리즈 등이 있다.

<본문이미지>



No.20150225-010

제목: 같이 놀자!

저자: 타시로 치사토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4년 10월 1일



<내용소개>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표현한 그림책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고정관념이 자리잡은 어른과는 달리 자신의 상상력을 기발한 놀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항상 동물친구들과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TV 화면이나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이 뛰어나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동화책은 그런 아이들의 상상력과 순수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타로는 동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도 방 안에서 놀고 있던 타로는 같이 있던 엄마가 빨래를 널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순간 옷장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잠시 후 옷장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귀여운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여우는 타로에게 함께 놀자고 말했고 잠시 주저하던 타로도 이내 여우와 함께 동물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한 켠에서 만난 원숭이와 함께 화장실에 갔더니 그곳에는 하마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함께 물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개운하게 목욕을 끝낸 타로와 동물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만 다름 아닌 펭귄들이었습니다. 펭귄들은 목욕을 한 후 목이 말랐던 모두를 위해 시원하고 맛있는 음료수를 주었고 다시 타로의 방에 돌아온 동물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껏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다시 돌아와 방문을 열자마자 동물친구들은 온데 간데 없고 노느라 어지럽혀진 방 안에 타로 혼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타로를 보고 엄마는 빙긋이 웃음 짓습니다.

<저자소개>

타시로 치사토

일본 도쿄 출생.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4년간 회사근무를 거쳐 그림책 작가로 데뷔했다. 주요 작품으로 '나는 카멜레온' 등이 있다.

< 본문이미지 >



